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성경: 시편 122편

Tag:

1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2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3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4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5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6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7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8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9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시122:1-9)

오늘은 세계국제정세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세계 각 나라에
대통령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신다.

기독교인들은 항상 나라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항상 법이나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잘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하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잘못하게 된다. 자기 이상을 국가에 실현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되고, 정적을 죽이기도 한다. 그래서 심지어 악한 법을 세우기도 하고, 자기가 세운 법을 자기는 어기는 경우도 있으며, 법을 공평하게 집행하지 않고 자기 집단에게 유리하게 집행하기도 한다. 그런 모든 악행들을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항상 기독교인들은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말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기도해야 하며, 악이 횡행하기 쉬운 세상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여 의인이 계속해서 살아남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야 한다.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의인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의인이 있는 나라에는 기적을 베푸신다. 아멘.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미친 듯이 미사일을 쏘아대던 북한이 요즘은 평화를 외치는 자들이 되었다. 이것은 아직도 북한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

남한에서는 그동안 북한식 공산주의를 외치던 자들이 그토록 정부를 뒤흔들어 대더니 결국은 정권을 거머쥐게 되었다. 남한의 기독교인들이 분열하고 교만하고 율법주의자들이 되어 간다는 신호이다.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많아질 때 국가는 인본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게 된다.

다행이라고 표현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북한은 미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겠다고 위협하였었다. 덕분에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 이슈가 되었고, 유엔을 통해서 대북 봉쇄 작전이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한 ‘고난의 행군 /1990년 중후반 부터’을 감행했다. 그들은 악마의 화신처럼 행동했다. 대량살상무기를 많이 준비했고, 핵무기뿐만 아니라 전쟁무기를 수출했으며, 심지어 마약을 거래하고, 해킹을 했으며, 무엇보다도 자국민들을 괴롭혔고, 착취했고, 그들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으며,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잔인하였다. 무려 70년 동안 그들은 공산당을 유지시키려고 갖은 악행을 저질렀으며, 끔찍하면 도발을 일삼아 남한을 괴롭혔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요즘 도발이고, 과거 땅굴로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때도 있었고, 끊임없이 무장공비를 남파하였다. 그후 깨닫고 무장공비는 더 이상 보내지 않고 사상전쟁을 하였다. 그들은 김일성 장학생을 길러내기 시작했고 세월이 흘러 이제는 언론, 교육, 노동계, 문화계, 예술계,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 심지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심지어는 청와대까지 북한의 사상으로 물든 자들이 가득하게 되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북한 전역에 임한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

김일성 장학생들은 반미, 반정부 운동의 배후에서 움직였다. 이들은 환경운동, 인권운동, 세월호 인양 운동, 동성애 옹호운동, 5.18 민주화 운동, 페미니즘 운동, 노동운동, 적폐청산 운동, 역사 바로세우기 운동, 과거사 청산 운동, 위안부 문제, 농민 운동, 청년 일자리 만들기 운동, FTA 반대, 사드 반대, 강정 해군기지

반대, 새만금 방조제 반대, 사대강 반대, 도롱뇽을 위한 고속철도 공사 반대, 원전 반대 등의 반 정부 운동의 배후에서 너무 오랜 세월동안 신좌파 이념을 통해 움직였고 나라는 이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아 왔다. 왜 우리나라는 이토록 오랫동안 이념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38선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싸움을 끝낼 수 없었다.

항상 반정부 운동의 배후에는 북한이 있었고, 대항 세력의 배후에는 한국교회가 있었다. (한국교회 내에서도 칼로 두부 자르듯이 선명하게 구별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성령의 사람들이 나라 지킴이 세력이고 율법의 사람들이 반 정부 운동을 하는 자들로 구분된다. 반 정부 운동을 하는 자들은 대부분 속아서 하는 것이고, 이들 중에는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라 지킴이 세력에 가담하게 되지만, 성령의 사람이 반 정부 운동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급기야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고,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자 선군정치(군이 먼저다는 정치적 가치관) 정책을 채택하면서, 평양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제는 정부가 책임져주지 못하게 된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기 시작했고, 장마당을 중심으로 시장경제가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자 북한의 주민들은 나름대로 시장경제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다.

결국 김정은은 핵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남한에서 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LA에 핵폭탄을 실은 ICBM을 쏘겠다는 위협을 하는 미친짓을 감행하게 되었다.

미국도 결국 초강경 노선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그동안은 달래는 수준이었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왕과 같은 트럼프 대통령을 예비하신 것이다.

한편 수출로 돈을 많이 벌어들인 중국은 어마 어마한 돈을 찍어내어 주변 각국을 설득하여 대규모의 건설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어마어마한 대국의 규모를 자랑하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인 일대일로를 만들기 위해서 공격적 성장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러나 중국 사회는 아직 세계질서를 아우를만한 사회적 신뢰가 쌓여있지 못하다. 중국은 이미 내부에서부터 붕괴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자 하나님은 세계 질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방식을 채택하셨다.

지금까지 세계 질서는 중동의 석유를 중심으로 균형을 유지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터져 나왔다. 당시 미국도 무역수지 적자, 신 좌파 정권의 미국 기독교 사회 흔들기, 테러와의 전쟁, 경제적 불안, 금융사고 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던 중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사건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한수였다.

미국은 셰일가스 대박이 터진 셈이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중동의 석유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세계 경제가 올 스톱하였다. 러시아는 망했고, 베네수엘라도 망했고(중국이 채권국 1위. 최악의 인플레이션. 10만분의 1 화폐개혁. 암호화폐 만들어 러시아와 딜 시도. 국민들의 엑소더스), 아르헨티나가 망해가고 있다.(현재 기준 금리 60%로 인상. 국민들 달러만 신뢰. 달러 사재기. 정부에 도움 주지 않아.) ISIS도 자금줄이 끊겼다. 테러분자들은 힘을

잃기 시작했고, EU도 난민들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다. 우파 강경주의자 트럼프가 정권을 쥔 다음에는 FTA도 사라졌다.

미국은 무차별적인 관세폭탄을 전 세계에 투하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 중국은 속수무책이다.

미국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중국이 직격탄을 맞았다. 미국의 멈추었던 공장이 다시금 돌아가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제가 최고 호황을 맞았다.

그동안 어르고 달래면서 세계의 형님 노릇을 하던 미국이 이제는 냉정하고 사업하듯이 국제 정치 무대에 나서고 있다. (제발 미국이 겸손해 지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데 이것이 북한에 놀라운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싸인이 아니겠는가?

우리나 북한이나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현 상황을 바라보아서는 안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눈이 필요하다.

우리는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의 눈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1953년 휴전 협정을 하면서 한미 군사동맹을 이끌어 냈던 이승만 대통령의 눈이 필요하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민족의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필사적으로 미국을 억압하며 동맹을 이끌어내고, 한국이 아닌 미국이 휴전협정에 서명을 하게 한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정전 협정도 미국이 당사자임)

우리 한국교회는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 가운데 세워졌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믿음의 유산으로 현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예루살렘 평양에서 김일성 우상을 제거하고, 본래의 거룩한 성 한국의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제목이다.

만약 우리가 부르짖지 않고, 저 마귀의 졸개들이 부르짖도록 방관한다면 우리는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을 모른채 하지 말아야 한다.

2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이스라엘 지파들의 고백.
-공산주의 만행 때문에 평양을 탈출한 기독교인들의 후예들이 훗날 평양 땅을 밟게 될 것을 상상해 보자.

3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당시의 평양은 가장 잘 나가는 도시였다.

4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5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현재 평양과 북한 전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절망의 땅이 되었고,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되었다. 인권은 유린 되었고, 아무런 대가 없이 카드섹션에 동원되어야 하는 도시가 되었다. 평양 시민의 웃음 뒤에는 김정은에 대한 공포와 미국과 남한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숨겨져 있다.

6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 우리가 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해야 하는가?
- 우리가 왜 북한 평양의 평안을 구해야 하는가?
- 왜냐면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이다.
- 이제 다시는 그곳이 악마의 소굴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겠기 때문이다. 그래야 남한도 살아남는다.

8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 이제 우리는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 남한과 북한만 생각한다면 전쟁이 답이고, 전쟁의 결과는 모두의 패배이다.
- 그러나 중국과 미국을 생각한다면 평화가 답이다.
- 김정은이 이 결말을 잘 알고 있다.
- 그러나 지금 우리 모두는 살얼음 위를 걷고 있다.
- 겉으로는 북한과 남한 내에 있는 공산당과 주체사상 주의자들과 남한에 있는 박정희 박근혜 자유 시장 주의자들이 극렬하게 대치하고 있는 것 같지만(또 북한에 있는 자유 시장경제를 갈망하는 자들), 사실 진짜 전쟁은 기독교와 반 기독교 세력의 대치이다.
- 전쟁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기고,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겨야 한다.
- 문제는 전쟁의 유무가 아니라, 주도권이 문제다.
-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겨서는 아니된다.

-세계 패권의 패러다임도 이미 바뀌었고, 한국교회의 패러다임도 이미 막장이다.

9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시122:1-9)

-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고, 영적 전쟁에 있다.
- 우리는 하나님의 집, 교회를 위해서 복을 구해야 한다.
- 한국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
- 그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